

광주 전남 가계부채 40조 육박... 1인당 1206만원

9월 39조5천억 1년새 87.5% 급증... 증가율 전국 평균 상회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가 39조5000억원 규모로 급증했고 1인당 가계부채는 1206만원, 가구당 가계부채는 4452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낮았다.

광주·전남지역의 인당·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는 타 지역 대비 작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

난 9월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이 39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계대출이 3조5082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 1조8706억원에 비해 무려 87.5% 급증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는 1206만원, 가구 당 가계부채 4452만원으로 각각 전국 평균의 69.5%, 6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2.5%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지역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52.7%)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매매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주택구입부담지수(K-HAI)가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3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21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가계대출의 5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위주의 대출 수요가 많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7.7%로 전국 평균(98.3%)에 비해 낮고 광역시·도 중에는 가장 낮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예금은행 연체율은 0.24%로 안정적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은 1.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증가 추세인 저금리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앞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총탄 흔적 전일빌딩, 사적지 보존"

윤장현 시장 밝혀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확인(광주일보 12월 14일자 1·6면)된 광주 전일빌딩 현장을 찾아 사적지로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건물 안전진단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일빌딩 보존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옛 전남도청의 5·18 당시 원형 보존을 요구하며 100일째 전막농성을 벌인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 전일빌딩 보존방침을 재확인했다.

광주시도 건물 안전진단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일빌딩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국과수 공식 감식결과와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전일빌딩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토대로 1차 보존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마련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도 5·18을 위주로 개편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최원일기자 cki@

받겠다"며 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도 당부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현장인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와의 협의를 거쳐 개방하도록 하라"고 건물 소유주인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옛 전남도청의 5·18 당시 원형 보존을 요구하며 100일째 전막농성을 벌인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 전일빌딩 보존방침을 재확인했다.

광주시는 국과수 공식 감식결과와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전일빌딩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토대로 1차 보존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마련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도 5·18을 위주로 개편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광주시는 국과수 공식 감식결과와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전일빌딩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토대로 1차 보존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윤 시장은 "총탄 흔적이 발견된 공간은 사적지의 의미로서 인식을 재정립하고 더불어 전체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도현 시인, 선거법 무죄 확정

"헌재 결정 전 박근혜 퇴진해야"

15일 선거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안도현(우석대 문창과 교수·사진) 시인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하루빨리 퇴진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무죄 판결 후 "재판부가 탄핵 시국에 맞춰서 선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

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목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은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 의사의 유목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사의 유목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차악의악식자부족역의·못은 옷을 입을 수 없더라)는 글씨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

안 시인은 "총탄 흔적이 발견된 공간은 사적지의 의미로서 인식을 재정립하고 더불어 전체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님 고령화 심각... 20년 뒤 65세 이상 '절반'

조계종 승려의 인구 구성이 5년 이내에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2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사학과 교수는 계간 불교평론 겨울호에 기고한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이란 논문에서 불교계의 노령화가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경우 지난해 1만3천78명이 종단 소속 승려로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2천140명을 차지해 고령화율은 16.36%에 달했다.

연합뉴스

장성 백양사 "내년 예산 10% 사회 기부하겠다"

장성 고불총림(古佛叢林·큰 스님들이 모인 도량) 백양사가 내년부터 연간 예산(20억 규모)의 10%를 사회에 기부하며 나눔정신을 실천한다.

백양사 관계자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선 방장스님과 토진 주지스님의 뜻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의 10%를 기부하는 등 먼저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백양사는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했던 '백양사 애기단풍축제' 먹거리·의상 판매 수익금 2500만원을 장성군 장학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 내년에는 초파일 1개월 전부터 장성군청을 비롯한 곳곳에서 '연등 밝히기' 운동을 실시하고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열어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도 연계해 비엔날레 행사기간 백양사 유물과 현대미술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성군이 주도했던 '백양사 애기단풍축제'를 민간단체가 주관해 내실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백양사 진입로(백양사로)를 황토길로 뒤덮은 친환경 생태문화 거리를 조성해 전연기념물인 비자나무와 애기단풍나무, 갈참나무 등을 보호한다. 2018년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난 해소에 나선다.

/김용희기자 kimyh@



지난 14~15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11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 수상 마을 대표자들이 김영석(가운데) 해수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 하나월마을 역량강화 사업 '최우수마을' 선정

해수부 주관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 '하나월 페리' 독창성 등 호평

지난 14일과 15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11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영광 하나월마을이 역량강화 사업부문 '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교육에 받은 전국 18개 마을이 참가한 마을계획 최종평가회에서 영광 하나월마을이 계획의 독창성, 리더와 주민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하나월마을은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전국 첫새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월마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중 하나인 목

포해양대로부터 지난 10월~11월까지 모두 4차례의 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다.

하나월마을은 이날 첫새우, 하수우 등 특산품의 고차 가공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 자체 예산을 들여 '하나월 페리'를 운영해 관광 및 주민 편의를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귀여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돌아오는 하나월'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박영대 하나월마을 어촌계장은 "생각하지도 못한 수상을 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마을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어민들을 상대로 열의

를 갖고 교육과 컨설팅에 임해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어촌을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를 주제로 개최된 제11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에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 이수마을, 6차 사업화 시범사업 대상 마을 등의 어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택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주민의 열된 호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중한 교육 성과물을 구체화시켜 어촌종합개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장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가액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증권,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뇨병 2천 등록!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매(홍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